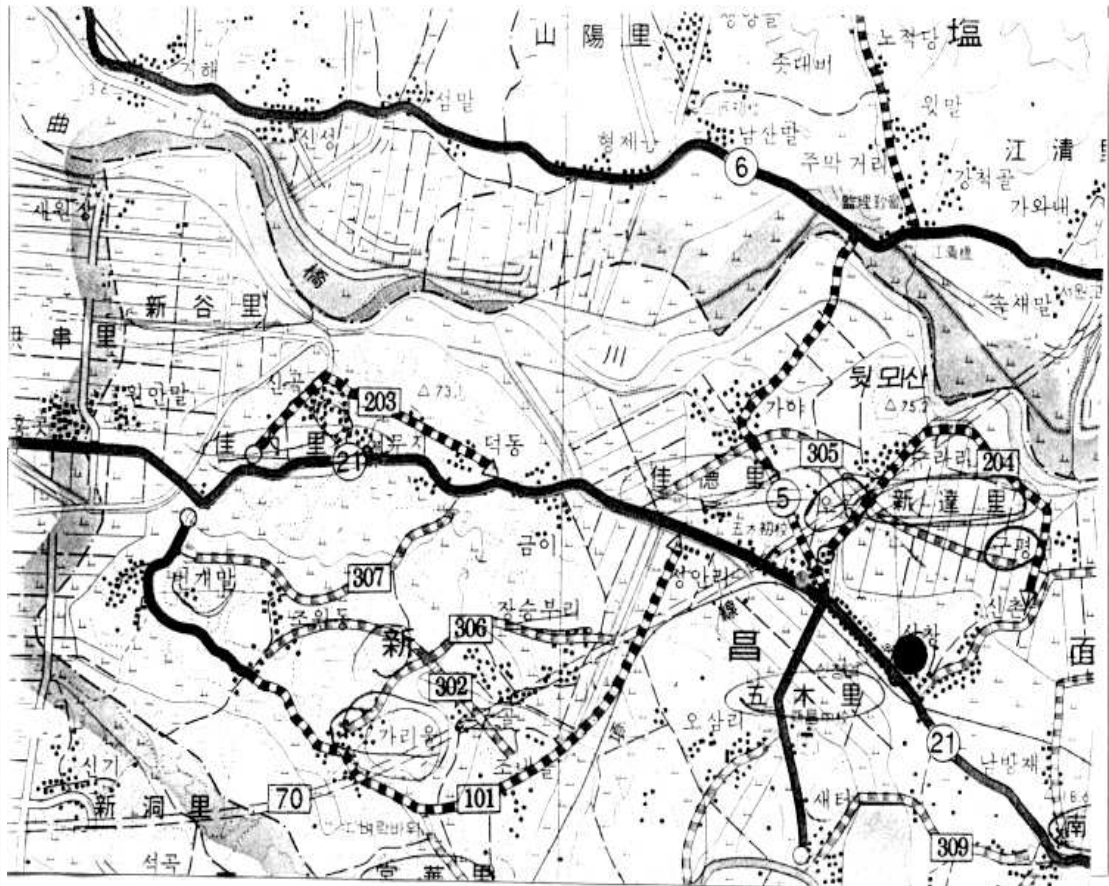


* 마을사 *

신곡리·新谷里

신곡리는 신창면의 한 마을로 언덕을 경계로 1리와 2리로 나뉘어 진다. 1리는 텃골로 불리우며, 2리는 여무시라고 불리운다. 총 인구는 414명이며, 총 119가구가 살고 있다. 1구는 농업과 기타직이 비슷한 분포를 보이고 있는 반면, 2리는 농업이 기타직보다 많은 분포를 나타내고 있다. 신곡리 본래 신창군 북면의 지역인데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신리, 신언리, 기곡리 일부와 대서면의 원내리와 아산군 삼서면의 신성리의 일부를 병합하여 신리와 기곡의 이름을 따서 신곡리라 하여 아산군 학성면에 속했다가 1921년 명칭 개정에 따라 신창면에 편입되었다.

<신곡리 위치도>



☒ 텃골, 여무실 마을 (신곡리)

텃골은 신곡리에서 으뜸가는 마을로서 주위는 야산이 둘러 있고 앞에는 큰 돌이 있으며, 갯고랑이 마을을 휘감아 흐르는데 옛날에는 해창을 관리하는 집터가 있었다고 한다.

여무실 마을은 텃골 서쪽 등 너머에 새로 형성된 마을인데 곡식이 잘 여문다하여 여무시라고 하였다고도 하며 뒷산이 누운 소의 형국인데 마을이 여물통과 같다 하여 여무시하고 하였다고도 한다.

<조사당시 신곡리 마을 관련 사진>



1) 위치

텃골 마을의 위도 36-48-50, 경도 126-54-00인 지역에 위치한다. 신창면의 끝에 있는 마을로 면소재지에서 3.8km 떨어진 지점에 위치해 있다.

여무실 마을은 위도 36-48-40, 경도 126-54-00인 지역에 위치하며, 텃골에서 남동쪽으로 약 200m 떨어진 마을로 마을 아래쪽으로는 21번 도로가 있다.

2) 현황

텃골 마을의 총 인구수는 207명으로 남자 103명, 여자 104명이며, 호구수는 60호로 75%가 농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나머지 25%는 기타직에 종사하고 있다.

여무실 마을은 인구는 남자 110명, 여자 97명으로 총 207명이며, 총 가구수는 59호가 살고 있으며, 59%가 농업에 종사하고 나머지 41%는 기타 서비스업종에 종사하고 있다.

- 인구 현황

구분 마을명	계	남	여
텃골 마을	206명	103명	103명
여무실 마을	207명	110명	97명

- 생업

구분 마을명	계	농업	기타 서비스업
텃골 마을	100%	75%	25%

여무실 마을	100%	59%	41%
--------	------	-----	-----

텃골 마을의 농경지 현황은 논 69ha, 밭 20ha 이며, 농기계는 경운기, 트랙터, 관리기, 콤바인등을 농사에 이용하고 있으며, 문화시설로는 마을 회관 1개소가 있다.

여무실 마을의 농경지 현황을 살펴 보면, 논 58ha, 밭 15ha로 텃골 마을보다 농경지가 약간은 적은 편이며, 농기계는 경운기, 트랙터, 관리기, 콤바인등이 영농에 이용되고 있어 기계 영농화가 점차 되어 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으며, 문화시설로는 마을 회관 1개소가 있다.

- 농경지 현황

구 분 마을명	계	논	밭
텃골 마을	89ha	69ha	20ha
여무실 마을	73ha	58ha	15ha

- 문화 시설

구 분 마을명	계	마을 회관	기타 문화시설
텃골 마을	1개소	1개소	-
여무실 마을	1개소	1개소	-

텃골 마을의 성씨별 분포를 보면 우씨 17%, 김씨 13%, 이씨 15%, 기타 성씨로는 55%로 조사 되었고, 연령층을 보면 50대~70대가 가장 많은것으로 나타난다.

여무실 마을의 성씨별 분포를 보면 강씨 15%, 김씨 13%, 이씨 17%로 조사 되었고 기타는 54%로 조사 되었다. 연령층을 보면 50대~60대가 가장 많아 보인다.

- 성씨별 분포 현황

구 분 마을명	계	강씨	김씨	우씨	이씨	기타성씨
텃골 마을	60호	8호	9호	9호	-	34호
여무실 마을	59호	9호	8호	-	10호	32호

- 최고령자

텃골 마을의 최고령자는 이 계원씨로 90세이시며, 여무실 마을의 최고령자 김씨 할머니로 93세이시다.

3) 자연경관

텃골 마을은 마을 주위로 논이 많고, 마을 북쪽으로 도로가 있다. 마을 형태는 삼각형으로 삼면이 도로로 둘러싸여 있으며, 도로 안쪽으로는 산이 많고, 바깥쪽으로는 논이 많다.

여무실 마을은 마을 아래쪽으로 도로와 접해 있고 마을 북쪽으로 1km 떨어진 곳에 작은 냇가 흐르고 있다. 도로 건너 마을 반대편에는 논이 산을 따라 펼쳐져 있다.

4) 마을 변천 과정

본래 신창군 북면의 지역인데,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신리, 신언리, 기곡리 일부와 대서면의 원내리와 아산군 삼서면의 신성리 일부를 병합하여 신리와 기곡의 이름을 따서 신곡리라 하여 아산군 학성면에 속했다가 1921년 명칭 개정에 따라 신창면에 편입 되었다.

5) 입 향

텃골 마을의 경주 최씨로 13대에 걸쳐 살고 계신 최규순(76세) 할아버지를 만날 수 있었으며, 이것으로 볼 때 마을의 형성시기는 서기 1580년경 약 420년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여무시 마을은 강북환씨에 의하면 진주 강씨가 10대에 걸쳐 살아왔으며, 5가구만이 현재 살고 있고 10가구는 다른 곳으로 이사했다고 한다. 이것으로 볼 때 마을의 형성년대는 서기 1700년 약 300년이 된 것으로 추정한다.

6) 지 명

十 텃골 마을의 지명

·텃골 : 신곡리에서 으뜸가는 마을로 뒤에는 야산이 둘러 있고 앞에 큰 들이 있으며, 또는 갯고랑이 마을을 둘러 싸고 흐르는데 옛날에 해장을 관리 하는 집터가 있었음.

·뒷골안 : 텃골 뒤쪽에 골짜기에 있는 마을.

·새원장(하창) : 여무시 서북쪽 들 가운데 있는 마을. 옛날에는 곡교천의 갯고랑이 이곳으로 굽어 흘렀는데 100여년전에 큰 장마로 갯고랑이 북쪽으로 변경되어 새로 뚝을 막고 옛 갯고랑은 그대로 남아 있으므로 갯고장 또는 하창이라 하였는데 지금은 흔적도 없음.

十 여무실 마을의 지명

·여무시 (여무실, 신리) : 텃골 서쪽 등 너머에 새로 된 마을인데 곡식이 잘 여문다 하여 여무실이라고 하였다하기도 하고 뒷산이 누운 소의 형국인데 마을의 여물통과 같다하여 여무실이라 하였다고도 함.

·높은 원장 : 독매기 아래에 있는 들인데 들이 다른곳 보다 높다는 뜻임.

·독매기 : 여무시 앞에 있는 들인데 제방을 막아서 들을 만들었다는 뜻임.

·보안 : 독매기 위쪽에 있는 들인데 곡교천에 보를 막아서 농사를 지었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라 옛날에는 흙으로 보를 막아 물을 쓰고 여름 장마철엔 보가 터지도록 매년 막아 쓰는 보가 많았음.

·새원장들 : 새원장 주위에 있는 들의 명칭

·시수물 : 높은 원장 아래쪽에 있는 들임.

·기애나루(그이에 나루) : 새원장 북쪽에 있는 나루터. 새원장에서 인주면 해암리 귀애로 감.

·여무시 나루 : 여무시 앞에 있는 나루터. 인주면 도흥리와 신성리로 감.

7) 전 설

十 당집 고양이

신창면 신곡리에는 커다랗고 아주 높은 큰 산이 있다. 옛날에 이 산에 무당이 살고 있었는데 젊은 여무당이 이곳에서 신을 모시는 신당에서 신께 빌고 있을 때 악랄한 산적들이 이 젊은 여자 무당에게 부정한 행동을 해서 이 무당이 반항을 하다가 죽었고 마침 그 젊은 무당이 데리고 살던 고양이가 자기 주인이 남한테 그런 일을 당하고 있으니 보기가 너무 안타까워서였는지 그 나쁜 놈들을 할퀴고 물고 하면서 눈을 다치게 하여 그놈들을 물리쳤다 한다. 그러나 그 고양어도 마침내 도둑의 칼에 맞아 죽고 말았다. 그래서 비가 오거나 하는 날은 이 고양이의 울음소리가 들린다고 전한다.

8) 전통놀이 및 대표적 행사

신곡리에서 행해지는 부락제로 정월 보름 저녁에 몸이 건강하고 정결하며, 복이 있는 사람이 제주가 되어 신곡1리, 신곡2리 합동으로 논 가운데 솟아 있는 부분에 단을 쌓고 북쪽을 등지고 남쪽을 향하여 하늘과 땅에 무병장수를 기원하는 제사를 지냈다고 한다. 지금은 지내지 않고 있으며, 텃골 마을은 5월 8일 어버이날에 노인 어른들을 효도관광을 보내 드리거나 음식을 나누어 먹고 12월 말일에 대동계를 하면서 마을의 대소사를 서로 의논하고 있다.

여무실 마을은 5월 8일에 어버이날에 노인 어른들을 모시고 잔치를 열고 있으며 마을에 애경사시 마을 주민 전체가 서로 힘을 합쳐서 협력하고 상조상조하고 있다.

9) 특별하게 소개할만한 인물

十 김옥례

아산군 신창면 석곡리에 가면 김 옥례 여사의 기념비를 볼 수 있다.

세상에는 착한 일과 효행을 많이 한 사람이 드물게 알려져 나는 이 김옥례 여사의 일생을 뒤돌아 볼 수 있는 기회를 갖고자 한다.

김옥례 여사는 어려서부터 봉사 정신이 강하여 남의 어려운 일을 그냥 넘기지 아니 하였고 부모에게 극진하여 동네에선 그를 칭찬하는 사람이 많았다 한다.

16세 되던 해에는 김 여사를 눈여겨 보고 그의 행실이 올바르고 예의가 밝음이 마음에 든 전씨 집안에서 청혼이 들어와 16세엔 전씨 집안으로 출가를 하게 되었다. 시집을 가보니 시할머님과 시부모님이 계셨고 집안도 좋은 편이어서 김 여사는 살기에 부족함을 모르고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었다. 그러나 2년 뒤 시어머님은 그의 막내 아들을 낳았다. 즉 김 여사의 시동생을 낳으셨던 것이다. 그 후 시어머님은 몸이 급격히 쇠약해져 자리에 눕고 김여사는 나이 어린 시동생을 극진히 대하였다. 시어머님은 자신의 막내 아들이 크는 것을 보지도 못한 채 출산후 2년 뒤 세상을 떠나셨다. 김여사의 고통이 다할 날이 그치지 않고 그해 시아버님 마저 돌아가셨다. 게다가 남편은 병석에 눕게 되어 김 여사는 모든 것을 하늘의 뜻이라 여기고 그 고통을 감수하기로 했다. 이제 남은 것은 앓고 있는 남편과 3살짜리 철없는 시동생뿐이었다. 망령이 든 시할머님까지. 그러나 김 여사에게도 남편에 대한 죄스러움은 컸다. 시집 온지 몇 해가 지났는데도 자식을 못 낳았으니 항상 고개를 숙이고 지내는 형편이었다. 하지만 김 여사는 작은 일에서도 행복을 찾으며 잘 견디었다. 시동생은 다행스럽게도 착하고 얌전하며 별 큰일 없이 커갔다. 김 여사는 정성을 다하여 시동생을 독선생으로 공부시키고 8살에는 보통 학교를 보내는 등 교육의 필요성을 남들에게까지도 일깨워 주었다. 14세 되던때 시동생을 장가 보내어 그의 자손을 양자로 삼아 표창을 여러 차례 거듭하여 받게 까지 되었다.

김 옥례 여사의 비는 그의 문중에 의해 세웠다고 한다. 그의 비문을 소개한다. " 하늘이 내린 어진 마음이요, 천륜의 모범이라 길이 후손에게 전하고자 이 비를 세웠다. "

10) 종교현황

텃골 마을에는 기독교 신곡 침례교회가 있으며, 신도수는 102명으로 조사 되었고 절은 없으며, 여무시 마을은 특별한 종교 단체가 없다.

11) 공장현황

텃골 마을의 공장이 없으며, 여무시 마을은 동국실업으로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가 있다. 동국실업(주): 가덕 520 자동차 부품 제조업 97. 3. 13. 면적 19,937㎡, 건축중이다.

12) 마을의 특성

텃골 마을은 옛날에 해창을 관리하던 터가 있으며, 최씨가 가장 많이 살고 있는 마을로서 주로 벼농사를 많이 짓고 있으며, 마을이 서로 단결하는 마을이다.

여무실 마을은 도로변가에 마을이 위치해 있으며, 신창면에서 가장 오지에 있는 마을로서 들이 많아 논농사를 많이 짓고 있으며, 가내리와 인접해 있고 마을에는 시골 마을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